



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 기업으로 성장

독자적인 개발로 차별 제품 생산

이윤우 / 효원포장기계(주) 대표이사

한 국포장기계협회(회장 신현재)가 선정한 포장기계대상 수상자 중 기술개발부문에는 효원포장기계(주)가 선정됐다.

“포장기계대상 기술개발 부문에 선정된 것에 대해 포장기계 분야 종사자로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이윤우 사장은 20여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6년 효원자동포장기계로 설립, 고도화된 자동화 기계를 선보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효원은 국내 유일의 와이드 랩핑기를 개발했으며 최근 담배인삼공사에 납품한 수출담배제품 자동수축포장기계가 특허 등록돼 있다.

이번에 효원이 선보인 랩핑기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해 선보인 와이드(Wide) 것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코자 개발된 것이다.

기존 랩핑기는 1 Pallet당 1,000원이 소요



되고 필름 1 Roll당 40 Pallet가 포장되는 반면 효원의 와이드 랩핑기는 1 Pallet당 400원이 소요되고 필름 1 Roll당 100 Pallet가 포장된다. 또한 하루 50 Pallet 포장 시 소요되는 필름원가를 보면 기존 제품은 1일 50,000원, 1달이면 1,250,000원, 1년이면 약 15,000,000원의 필름이 소요되며 와이드 랩핑기는 1일 20,000원, 1달이면 500,000원, 1년이면 약 6,000,000원의 필름이 소요된다.

때문에 1년 사용 시 필름절감액은 약 9,000,000원이 절감하는 꼴이 된다. 이러한 원가차이는 필름 연신율(제품포장 시 가로와 세로의 줄고 늘어나는 비율)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일반 랩핑기로 1m를 포장(랩필름 폭이 500mm일 때)할 때 폭 500mm에서 370mm로 줄어들며 길이 1m에서 1.3m로 늘어난다. 와이드 랩핑기로 1m를 포장(랩필름 폭이 500mm일 때)할 때는 폭 500mm에서 750mm로 늘어나며 길이 1m에서 최대 2.5m

로 늘어난다.

이윤우 사장은 “비교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랩핑기에 비하여 와이드 랩핑기가 최대 250%의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물류비용절감은 물론 수입대체 효과 등 연간 약 15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간 끊임없이 연구개발 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이윤우 사장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당한 IMF 당시 어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기점으로 연수개발 및 신기술 도입 등 기술개발에 더욱더 매진했습니다”라는 이윤우 사장은 “그 결과 타사와 차별화 된 효원만의 독자적인 기계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느 분야나 기업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직원간의 화합이다. 임직원간의 수직이 아닌 수평관계를 통한 화합을 가장 최고로 꼽는 이윤우 사장은 철저한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

“무엇을 하던지 지금의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앞을 멀리 내다보고 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행해져야 합니다”라는 이윤우 사장은 “최고의 제품 생산으로 고객 만족을 이루는 동시에 한번 효원의 고객이 된 이상 끝까지 효원의 고객으로 여기고 이에 대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윤우 사장이 현 포장기계 분야의 문제점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히 국내에만 안주

하려는 우물안식 경영전략을 꼽았다.

“세계시장을 겨냥한 품질 개발 및 연구개발로 저렴한 가격대와 품질 향상을 통해 동남아, 중국, 유럽 등 수출 증대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국내 포장기계 분야의 과다출혈 경쟁으로 가격하락과 품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 방안중 하나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으며 국내 포장기계 제작 기술이 이제는 세계와 견주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과 수출 장려는 물론 제품 수출 후 분쟁시 중소기업 수출분쟁해결반 운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포장업계는 수출 위주의 영업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윤우 사장은 앞으로 선진 기술과 효원의 장점을 살려 해외시장 개척을 토대로 해외수출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특허 등록하며 효원만의 독자적인 제품을 제공코자 노력할 것이라는 이윤우 사장의 당찬 포부에 국내 포장기계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

권해진 기자